

大河기획/한라산 학술대탐사(176회)

제2부 한라대맥을 찾아서-(10)한라대맥 제1구간 탐사완료

입력 : 2003. 12.12. 00:00:00



<탐사일정 및 코스 : 9/22~11/8>

우도봉→일출봉→두산봉→식산봉→지미봉→은월봉→용눈이오름→

손자봉→둔지봉→아끈다랑쉬오름→다랑쉬오름→돌오름→동거문악→문석이오름→높은오름→당오름

■제주가치를 재발견하는 발걸음

한라산학술대탐사 제2부 '한라대맥을 찾아서'가 제1구간 탐사를 마쳤다. 제1구간은 우도봉에서 구좌읍 송당 당오름에 이르는 구간이다.

탐사단은 지난 9월 20일 우도봉을 시작으로 성산일출봉, 식산봉에 이어 북제주군 구좌읍 지미봉, 두산봉, 은월봉, 용눈이, 손자봉, 둔지봉, 다랑쉬, 아끈다랑쉬, 돌오름, 동거문악, 문석이, 높은오름, 당오름을 차례로 답사했다. 제1구간에서 탐사한 오름은 모두 16개다. 1구간 답사는 우도면과 성산읍 일부를 포함해 대부분 구좌읍 일대 오름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이 구간 탐사는 11월 8일까지 약 40일간 계속됐다.

'한라대맥'은 한라산 정상을 중심으로 타원형의 제주섬 가운데 동쪽 끝자락인 우도에서 서쪽 차귀도를 잇는 제주섬의 최장축 라인으로 직선거리가 약 74km에 이른다. 탐사는 '한라대맥'을 우도~송당, 송당~5.16도로, 국립공원, 영실~이시돌, 새별오름~차귀도 등 5개 구간으로 나눠 실시되고 있다. 탐사단은 12월 현재 다시 아부오름을 시작으로 제2구간 탐사를 진행중에 있다. 탐사단은 제1구간 탐사를 통해 '한라대맥'의 새로운 가치를 발굴해내는 등 성과를 거두고 있다. 탐사에는 지질, 역사, 인문지리, 풍수, 식생, 조류, 산악 등 각 분야에서 활동중인 전문가들이 대거 참여해 제주의 가치를 입체적으로 분석, 재조명하고 있다.

우도탐사 과정에서 한라산 동부 능선의 오름을 파노라마로 담은 '천진관산'의 진경을 지상 소개했다. 국가지정 천연보호구역인 성산일출봉 분화구에서는 대나무(이대)가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사실을 밝혀내고 대책을 촉구했다. 이와 관련 문화재청과 남제주군은 사안의 심각성을 인식해 현재 후속대책을 마련중에 있다. 구좌읍 종달리 지미봉 일대가 과거에는 '섬'에 가까운 반도였다는 사실을 고지도 복원작업을 통해 추적함으로써 도민사회에 큰 반향을 일으켰다. 베일에 가려져 있던 생태자원도 탐사를 통해 속속 발굴됐다. 다랑쉬오름 분화구 능선에서 한국특산

소사나무 최대군락지를 확인한 데 이어 당오름에서도 세계적 희귀식물인 가시딸기 집단 자생지를 발견했다. 초원오름이 해송군락 등으로 급속히 변화되는 등 오름의 생태환경변화에 대한 경각심도 불러일으켰다. 한라대맥은 인문지리와 풍수학적 접근을 통해서도 집중조명되고 있다./특별취재반

[사진설명]한라대맥 탐사는 계속되고 있다. 저멀리 아스라이 보이는 한라산 정상 아래로 한라대맥 탐사단의 씩씩한 발걸음이 옮겨질 제2구간의 오름군들이 흐린 날씨속에서도 웅혼한 위용을 드러내고 있다./사진=강경민기자 gmkang@hallailbo.co.kr

['한라대맥' 재조명 보람/탐사위원 소감]

△정광중 위원(제주교대 교수/인문지리분야)

우도의 소머리오름에서 시작된 한라대맥 탐사는 드디어 제1구간의 종착역인 송당마을의 당오름에서 일단락을 매듭짓게 되었다. 제1구간에서는 16개의 오름을 비롯하여 주변마을과 목장, 철새 도래지와 비자림 그리고 돌 박물관 등을 탐사 또는 탐방할 수 있었다. 1주일을 주기로 하여 약 2개월의 행보 끝에 얻어진 소중한 결과였다.

이곳저곳에 자리잡은 오름들은 탐사위원들에게 흥미로운 공부거리와 많은 학습과제를 안겨주었다. 그리고 탐사위원들은 계속해서 주어지는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열심히 오름을 오르고 또 올랐다. 그러나 과제해결을 위해 공부를 하면 할수록 더 많은 정보와 지식의 축적이 필요하다는 사실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그 이유는 제주의 오름이 단순히 자연의 일부로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각 시대를 살아온 제주주민들의 손길이 닿은 결과, 자연과 역사와 문화의 복합체로서 인식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기 때문이다.

앞으로도 탐사위원들은 제1구간에서의 탐사경험을 발판으로 삼아, 제2구간의 많은 오름을 탐사해 갈 것이다. 그리고 탐사를 거듭하면 할수록 제주의 오름이 가지는 자원적 가치와 더불어 지역자산으로서의 소중함을 뼈저리게 느끼게 될 것이다.

△신영대 위원(제주관광대 교수/풍수분야)

제주도 풍수의 고전으로 익히 알려진 《과영주산세론過瀛州山勢論》에 "영주산 즉, 한라산은 마치 백학이나 푸른 매의 형국으로 주위 사방을 높이 바라보면 마치 장군이 홀로 앉아 있는 듯하다. 머리는 서쪽으로 향하고, 꼬리는 동쪽으로 내려 祖宗山(조종산)인 백두산을 돌아보는 형국이다. 또한 동쪽의 산세는 아름다운 미인의 눈썹같아 벼슬을 하지 않아도 번창한다"라고 했다.

이번 탐사의 주요목표인 한라대맥은 동쪽 우도에서 서쪽 차귀도까지 제주도의 최장축 라인으

로 한라의 대맥으로 추정되는 동서의 지질구조선을 중심으로 동서로 1백여개의 오름이 분포된 것을 기본골격으로 하였다.

한라대맥의 탐사 구간중 제1구간을 마무리하며 느낀점은 오름의 역할이 실제로 마을마다 넘쳐흐르는 생명력을 제공하고 있다는 사실과 계절마다 기의 순환을 조화롭게 하여 생태학적으로 귀중한 근간을 이루어주고 있음을 간과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한 중요성에 비추어 특히 오름의 파괴만은 막아야 한다는 절박함과 더불어 자연과학인 풍수학적 지혜를 살려 마지막 제주도의 생명체인 오름을 대하는 도민들의 의식이 새롭게 정립되어야 한다는 긴박한 사실을 깨달았다.

동쪽의 오름들은 색채의 아름다움과 공간배치의 조화성, 특히 심오한 易(역)의 이치를 담고 있으며 조형미와 변화의 창출성이 빼어나고, 상호 보완성의 지맥을 안고 있는 그 자체로써 더욱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우도 소머리오름에서부터 당오름까지 이들 오름들이 가지고 있는 부감도는 최고의 조형미 그 자체였고, 상호보완성과 유기적인 역할로 기의 순환을 이루고 있었다. 특히 하도 철새도래지 일대와 동거문이, 문석이, 높은오름을 끼고 있는 미나리못, 남산봉 일대의 습지, 九曲水(구곡수)의 원형을 안고 있는 천미천은 水氣(수기)가 빼어나 동쪽에 용기하는 기운을 곳곳에 경계를 지어주는 충전소의 역할을 하고 있었다.

한라대맥 탐사는 계속 이어지고 있다. 오름을 밟고 대맥속으로 점점 나아갈수록 혹 잊혀졌던 의미들이 새롭게 우리를 기다리고 있으리라 믿는다.

△정차연 위원(농업기반공사/지질분야)

한라대맥 제1구간(우도-송당 당오름)에 대한 탐사를 마무리하였다. 아직 그동안 조사된 많은 자료들을 모두 정리한 것은 아니지만 우선 개략적인 내용은 구성이 완료된 것이라 할 것이다.

평탄지에 분포하는 현무암의 지질과 시추에 의한 지하지질을 주로 비교·조사하여 온 본인으로는 화산활동이 직접 만든 화산(오름)들을 집중적으로 탐사하는 이번 탐사가 아직은 모든 것이 새롭다. 오름들은 일견하여 모두 유사한 형태와 형성기원 및 물질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알고 있으며, 본인 또한 그러하였다.

그러나 금번 탐사의 1구간을 지나오면서 오름 하나 하나를 오를 때마다 오름마다 각기 다른 과거 지질 역사를 품으면서 화산활동과 연관된 다양한 지질학적 현상이 구체화된 결정체임을 알게 되었다. 마그마와 물이 서로 상호작용 함에 따른 화산활동으로 형성된 것(소머리오름 일출봉 두산봉), 송이로 구성된 분석구(다랑쉬 돌오름), 송이분출과 용암분출이 함께 나타난 것(지미봉 둔지봉 좌보미 동거문악) 등의 특성으로 요약할 수 있었다. 그리고 본인의 알량한 지질학적 지식으로는 풀 수 없는 지질현상 또한 많이 보았다.

△고정균 위원(한라산연구소 팀장/식생분야)

1구간을 지나 백록담을 향하여 나아가는 길목에는 또 어떤 오름들과 이들이 간직한 흥미로운 지질사건이 나타날지 사뭇 기대되는 바이다.

우도봉에서 당오름에 이르는 제1구간 탐사구역은 중산간 이하 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과거부터 인간의 다양한 이용대상이 되어왔던 곳이다.

현재 이들 구간 대부분의 오름은 급속한 식생변화가 발생하고 있다. 이로 인해 오랜 세월 지속돼왔던 오름의 식물상(植物相)이나 경관변화가 뚜렷하다. 즉, 대부분 오름에서는 방목, 화입 등 인위적 간섭이 적어지면서 초원지대가 2차 천이의 첫 단계로 볼 수 있는 참억새나 해송군락의 발달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오랫동안 오름경관으로 자리했던 초원이 앞으로 해송군락 등의 형태로 변화될 것을 예측할 수 있다. 그리고 목장으로 이용되고 있는 오름들도 외래식물인 개민들레 등의 유입·확산으로 자생식물이 자라던 자리를 빼앗아 가고 있다.

또한 삼나무 등의 조림(造林)은 오름의 경관을 바꾸어 놓고 있을 뿐만 아니라 조림지의 하부에 식물이 자랄 수 있는 환경조건을 잃게 하고 있다. 이와 같은 오름의 환경변화로 볼 때 이번 탐사가 오랜 세월 토착해왔던 오름의 고유한 식물들에 대한 가치 있는 기록이 될 것이다. 더불어 오름의 자생식물 보존과 관리방향에 대한 과제를 제시하고 있어 탐사의 의미가 매우 높다고 하겠다.

△김완병 위원(제주도자연사박물관/동물분야)

우도봉에서 당오름까지의 동부 지역은 야생조류의 다양한 서식공간을 갖추고 있는 구간으로 조류의 종다양성과 생태환경을 이해할 수 있는 최적지이다. 우도봉, 일출봉, 두산봉 일대의 해안절벽은 멸종위기종인 매를 비롯하여 물수리, 가마우지, 칼새들의 번식지 또는 잠자리로 이용되는 곳이며, 오조리~시흥리~종달리~하도리까지의 연속적인 해안조간대와 갈대습지는 물새들의 먹이터와 은신처로서의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어서 이동 철새들의 주요 월동지 및 중간 기착지로서 이용되고 있다. 그리고 둔지봉, 높은오름, 돌오름, 다량쉬오름 등의 육상 오름군 일대와 미나리뭇은 말뚥가리, 황조롱이, 매와 같은 맹금류들의 먹이터이며 직박구리, 멧비둘기, 제주휘파람새, 멧새, 꿩 등의 제주 텃새들의 보금자리가 되고 있다.

특히 하도리에서 오조리까지 이어지는 곳은 저어새와 겨울철새들의 핵심 월동지인 동시에 지역주민들의 생업공간으로 언제나 철새들과 공존하고 있는 공간이다. 이 일대는 철새도래지로서의 생태적 가치뿐만 아니라 주변의 우도와 토끼섬, 종달리 및 성산만 갯벌체험지, 하도 해수욕장, 일출봉, 두산봉, 지미봉, 용천수, 종달리 패총유적 및 별방진, 돌담과 농촌모습, 향토음식점 등과 같은 경관적, 역사적, 토속적 가치가 뛰어나 천혜의 생태관광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

[알림]이번주는 일요일에 탐사합니다

한라산 탐사는 각 분야의 전문가와 취재팀으로 구성, 매주 실시되고 있습니다. 이번주 탐사는 14일(일) 거스새미·안돌·밭돌·체오름입니다. 집결지는 당일 오전 9시까지 한라일보사 1층 휴게실입니다. 탐사참가비 1만원. 동행을 희망하는 독자 여러분께서는 기획특집부(750-2280)로 연락 바랍니다.

△한라산 '대탐사 홈페이지' 새롭게 업그레이드 되었습니다. 많은 이용바랍니다.

특별취재팀/ 한승철부장(기획특집부)·강시영·이윤형차장 (〃)·표성준(편집부)·강경민 기자(사진부)

후원 : 한국언론재단 영상취재/디지털라인(주)

<저자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